

제공일자	2013. 8. 8(목)	담당자	황진태 연구위원
홍보담당	김세환 부장(02-3775-9051)	연락처	02-3775-9024 010-8007-1459
		총2매	

제목 : 보험설계사, 자율성 보장된 개인사업자 신분 선호

- 보험연구원(원장: 강호)의 황진태 연구위원과 이해량 연구원은 『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에 대한 인식』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함.
 - 최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관련법률이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, 이에 해당하는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변화와 수용가능성 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.
 - 설문조사는 서울마케팅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9개 생명보험회사의 전속설계사 2,74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하였음. 그 결과 850명이 응답하였으며, 신뢰수준은 95%±3.4%p임.
- 보험설계사 직업을 선택하는 동기에 대해 49.9%의 보험설계사는 노력한 만큼 고소득 창출 가능하다는 점을 들었으며, 20.2%는 자율적인 시간활용, 19.1%는 전문가로서의 비전이라고 응답하였음.
 - 또한 보험회사가 실시하는 조회의 목적에 대해서 87.2%의 설계사는 정보제공 및 상품교육 등 영업활동 지원이라고 응답하였으며, 조회(일상교육)에 불참하더라도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.
 - 95.6%의 설계사는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, 이들 중 75.7%의 설계사는 단체보험을, 나머지 24.3% 설계사는 산재보험을 선호한다고 응답하였음.
 - 단체보험 선호이유는 ‘산재보험에 비해 보장범위가 넓어서(37.9%)’, ‘산재보험을 통한 보장이 까다로울 것 같아서(27.6%)’, ‘단체보험의 특성상 본인 부담 보험료가 없어서(24.2%)’인 것으로 조사됨.

- 보험회사와 계약방식에 대해 보험설계사들은 현재의 위촉계약방식인 개인사업자 신분(71.6%)을 월등히 더 선호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음. 이에 비해 법적인 고용계약방식을 선호하는 설계사는 19.6%로 매우 낮게 나타났음.
 - 위촉계약을 선호하는 이유는 76.0%가 “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”, 11.8%가 “육아 및 가사 등 시간활용이 자유롭다”로 응답
 -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들의 소득세 납부방법에 대해서도 75.6%가 사업소득세 납부를, 18.6%가 근로소득세 납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.
- 향후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, 발생하는 추가비용(4대 보험, 퇴직금, 고정급여 등)이 설계사의 현재 소득감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에 대해 54.3%의 설계사들이 전혀 부담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음.
 - 10% 소득감소를 부담할 의향이 있는 설계사의 비율도 26.2%로 낮으며, 소득 100만 원 이하의 저소득 설계사도 30% 이상의 소득감소를 부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0%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음.
- 보험설계사 직업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78.5%의 설계사가 개인사업자로서의 자율성 보장을 압도적으로 들고 있으며, 20.3% 설계사만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음.
- 국내 보험설계사들은 보험설계사 직업의 선택 동기와 직업으로써 중요한 점, 법적지위 변화와 수용가능성 등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, 법적인 근로자 신분보장보다는 개인사업자로서 자율적 노력에 따른 고소득 창출과 자유로운 시간활용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.